



국제학교 잉여금 소송 싱거운 결말

YBM 잉여금사용 부적합 결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재판부 “교육청 의견 제시 행정소송 대상될 수 없어”

국제학교 잉여금을 놓고 벌어진 와이비엠제이아이에스(이하 YBM)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법적 다툼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국제학교(KIS) 운영법인인 YBM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잉여금사용부적합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KIS는 제주영아교육도시 내 공립 국제학교다. YBM은 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초·중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선 지난 2013년 599억원을 투자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소송은 잉여금 사용 과정에서 발생했다. YBM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발생한 잉여금 중 고등학교 설립 당시 투자한 59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신들의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잉여금 사용 승인' 신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은 이 중 122억원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검토 의견을 보였다.

당시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 회계 규칙상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일부터 국제학교 등기일까지 집행된 경비'이지만 투자금 중 112억원은 이 기간에 집행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10억여원은 회계 규칙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보였다.

반면 YBM은 “제주특별법은 국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용 목적에 대해서만 제한할 뿐 다른 제한은 두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회계규칙으로 국제학교가 잉여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기간으로 제한한 것은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 위위 원칙을 위반해 무효이며, 또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도교육청의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YBM 측이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의 통지(검토 의견)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은 도교육청이 이미 부적합하다고 결론 내린 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물질 끝낸 해녀들 15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마을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으로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 ‘코로나19’ 예방차원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 이후...

제주 입국 외국인 전년대비 74% 감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한 결과 제주도 입국자가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10일간의 경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지역을 통한 입국자 수는 8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 2896명) 대비 73.6%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된 후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등 현지에서 총 9520명이 우리나라 입국에 제한을 받았다.

이밖에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 사증 8만1589건의 효력을 정지해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으며 이번 조치로 효

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080건)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 방문 사증이다.

현재 정부는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잠복기간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일반고 전환 모형 공론화 계획 중단하라”

제주외고 학부모 항의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검토하기 위한 제주도교육청의 공론화 계획에 반발하며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제주외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제주외고폐지반대대책위(이하 대책

위)는 지난 14일 오전 도교육청을 찾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2호 의제로 선정된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의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학부모, 재학생, 동문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빠진 채 ‘밀실행정’으로 의제가 기습 선정됐다”며 “공론화 의제를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형 IB(국제 바칼로레아, 국제 공인 평가·교육과정) 과정을 포함한 제주외고 활성화 방

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면담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은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와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 두 가지 전환 모형을 두고 논의를 시작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외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해경 무면허 운항 선박 2척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어획물 운반선 S호(84t, 통영선적) 선장 A(64)씨와 연안복합어선 N호(5.57t, 모슬포선적) 선장 B(76)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출항해 이튿날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238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된 상태에서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출항해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후 다시 모슬포항 입항 시까지 약 22.5km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무면허 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셋 중 두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해”

도교육청 ‘2019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제주지역 고등학생 10명 중 1.5명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3명 중 2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4일 발표한 ‘2019 도내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29일 도내 고등학생 1만4616명(전체

의 71.2%)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명 중 2명 이상인 3232명(22.2%)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49.5%는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80%)였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학생의 절반 이상은 식

당(50.8%)에서 서빙, 청소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2019년 기준 8350원) 이상 받은 학생은 2018년 69.9%에서 지난해 84.9%로 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은 16.4%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임금 부당지급’(65.7%)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2018년 30.9%에서 지난해 34%로 약간 늘었지만, 여전히 셋 중 두명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

김지은기자 jieun@halla.com

충남 태안서 실종된 50대 제주해상서 숨진채 발견

16일 오전 11시12분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약 50m 떨어진 해상에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가 제주해경에 접수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발견된 시신은 지난달 15일 충남 태안군 해상에서 레저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실종된 A(58)씨로 확인됐다. 김현석기자

승용차 10m 다리서 추락

16일 오전 2시42분쯤 제주시 연동신시가지 입구 사거리 출천3교 인근 도로에서 조모(41)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크레인을 이용해 조씨를 구조했으며, 조씨는 머리 등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현석기자

40대 여 바다에 빠져 숨져

지난 13일 오후 2시24분쯤 제주시 건입동 탐동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A(48·여)씨가 의식을 잃고 떠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현석기자

2020년도 친환경농업대학 수강생 모집안내

- 교육과정**
 - 과 정 명 : 2020년도 친환경농업대학, 과정
 - 모집대상 및 방법 :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거나 관심있는 농업인 30명
 - 교육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제주대학교 신학협력단에 위탁교육
 - 수강기간 및 강좌
 - 기간 : 2020년 3월 3일 ~ 12월 01일(1, 2학기 총28주)
 - 시간 : 매주 화요일 14:00 ~ 17:50
 - 장소 :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층 대강당
 - 교육목적 및 내용**
 - 친환경 농업에 대한 개념정립과 선진 기술교육으로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목적
 -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인증제도, 유기재배 기술, 친환경농자재 실습 등 친환경재배와 관련된 이론 및 실습
 - 원서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03(월) ~ 2. 21(금)
 - 제출서류 : 본 대학 소정의 입학지원서 1통, 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1부, 사진 2매(3×4cm)
 - 접 수 처 :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1층 친환경농업대학 사무실
 - 합격자 발표**
 - 2020. 2. 28(금) 핸드폰 문자 통보
 - 수수료**
 - 수 강 료 : 250,000원(원서 접수시 납부)
 - 입학식**
 - 2020년 3월 3일(화) 14:00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2층 대강당
- ※ 문의사항 : 친환경농업대학 ☎ 064-754-3321
 ※ 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 제주대학교(http://www.jejuun.ac.kr)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친환경농업대학

2020년도 제17기 복지원에서 양성과정 교육생모집

(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08-024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기간**
 - 2020년 2월 29일(토) ~ 7월 25일(토)
 - 매주 토요일 14:00 ~ 18:00,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10:00~17:00
 - 교육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교육장소**
 - 제주농어업인회관(제주시 선덕로23, 중앙중학교 옆)
- 모집인원** : 70명(선착순)
- 신청자격**
 - 원예치료 및 복지원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 수강료**
 - 무 료(실습재료비 등 별도 부담)
- 접수기간**
 - 2020년 2월 17일(월) ~ 2월26일(수) 10:00~17:00
 - 단,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개강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종료 시 개강 예정(개별통지)
- 신청방법** : 접수처 직접방문 신청
 - 다들가메에서 제주원예치료복지협회 회원등록 후 협회소식 【공지사항】 제17기 복지원에서 양성과정 교육생모집에서 입학지원서를 다운받아 이메일(j0075@hanmail.net), 또는 팩스 726-2344로 접수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사진부착),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양식 협회사무실 비치)
- 접수처**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752-0075) - 제주시 가령로 57(이도2동)
- 문의처**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752-0075)

사)제주특별자치도원예치료복지협회장

晉州姜氏濟州市宗會 定期總會 案內

2020년 庚子年을 맞이하여 현종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제11대·제12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제주시 중회 발전을 위하여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0년 2월 22일(토) 정기총회 18:00 / 이·취임식 18:30
- 장소** 아젠토피오레컨벤션 1층 (서광로 112 / 오라삼동 2401-46)

내 용

- [제1부] 정기총회 (18:00~18:30)
 - 증무보고
 - 감사보고
 - 부의인건
 - 제1호 의안: 2019년도 수입·지출 결산 보고
 - 제2호 의안: 2020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보고
 - 제3호 의안: 연회비 조정 보고
 - 제4호 의안: 감사 선출 인준의 건
 - 제5호 의안: 회칙 개정(안) 의결의 건
 - 제6호 의안: 포상규정 개정(안) 의결의 건
 - 기타사항
- [제2부] 제11대·제12대 회장 이·취임식 (18:30~)
 - 이임회장: 응석 취임회장: 인택

晉州姜氏濟州市宗會 會長 龍哲

해외.영농 투자자 모집

사업명 : 제주한라봉.레드향.감귤농장

- 영농지역 : 베트남.다낭 (평남성)
- 사업규모 : 300ha (약100만평)
- 영농투자인원 : 5~6인 선착순
- 투자금액
 - 1인당 10만usd 1억2천만원
- 투 자 자
 - 1인1ha (3천평), 현지, 국제, 변호사공증, 본인명의
- 사용기간 : 50년간
- 소 득
 - 2년 경과후 3만usd 보장
 - 농장매매 및 상속가능
 - 재해보험가입가능 (주.정부행정지원)

문의 상담 제주시 봉개동 (황금농원) H.p. 010-9292-6933